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ly 4, 2019 Vol. 678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당신이 예배자



좌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를 준비하는 굿네이버스 김재학 본부장, 심형진 목사, 굿네이버스 김택영 목사

"찬양의 결과는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번 워십 콘서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작지만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와 인기 가스펠 싱어송 라이터 심형진 목사가 이끄

는 워십투게더가 오는 7월 6일(토) 저녁 7시 30분에 부에나 파크에 위치한 '더 소스' 쇼핑몰(6940 Beach Blvd.)에서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를 개최한다.

그동안 찬양 콘서트로 여러 차례 남가주 지역 한인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었던 '워십 투게더 콘서트'가 이번에

는 특별히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의 영역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심형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예배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고민하면서 굿네이버스와 함께 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6일(토) 오후 7시 30분 부에나파크 '더 소스' 쇼핑몰

비하게 됐다"며 "예배의 자리임과 동시에 제 3세계 빈곤 아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의 자리도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심형진 목사는 이번 찬양 콘서트를 계획하면서 지난 달, 굿네이버스 사역지 가운데 한 곳인 과테말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보게 됐다"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단체로 전 세계에 굽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해외 35개 빈곤 국가에서 교육 및 보호 사업, 보건 의료 사업, 식수 및 위생 사업 등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30만 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김재학 본부장은 "참

석자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전세계 빈곤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91번과 5번 프리웨이 사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쇼핑몰 '더 소스'는 3층 규모, 연면적 40만㎡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 문화공간이다.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뿐 아니라 종교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할 수 있는 전도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풀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독립교회사전교단체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심형진 목사는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예수답기', '주의나라가 임할 때' 등의 인지도 높은 50여 곡을 작사, 작곡 했으며 20년 가까이 예수전도단에서 예배 인도자로 활동하며 국내외 캠퍼스 워십의 부흥을 이끌었다.

김동욱 기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제24차 북미주 KCBMC 대회(총회장 김영균, 준비위원장 서정수)가 지난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달拉斯 텍사스에 위치한 달拉斯/포트워드 메리엇 호텔(Dallas/Fort Worth Airport Marriott)에서 "우리들의 일터사역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럽, 아시아, 한국, 캐나다와 미전역에서 250여 명의 CBMC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달拉斯에 있는 저희와 남부 연합회를 비롯한 북미주 KCBMC 40개 지회와 유럽지회, 아시아 지회 그리고 한국 지회 등지에서 다른 대회와 달리 각 연합회에서 저희원들이 강사가 되어 자기들의 일터 사역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대회였고 내 일터가 사역지임을 확신하고 성경적 경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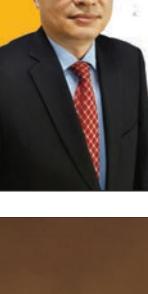
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비전 아래 삶과 일터의 변화를 경험한 회원들이 강사로, 1세 회원들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공의 사례를 나눴다면, 2세 차세대 회원들은 현재 비즈니스가 녹록지 않고 난관에 놓여 있음에도 고난 너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능선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나눴다. 이는 CBMC가 YCBMC 지회 회장에 나서는 가운데 의미가 컸다.



KCBMC 제 24회 달拉斯 대회

고수익,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월드미션대학교 개교30주년

기념음악회

2019년 7월 16일 (화) 오후 8시

WALT DISNEY CONCERT HALL

(111 S. GRAND AVE., LA, CA 90012)

축제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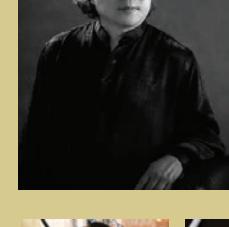
본교 교수진들의 연주를 통해 30주년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

감사의 무대

본교를 통해 발굴 된 뛰어난 지휘자들과 연주자들이 참여,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

희망의 무대

개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된 칸타타 '요셉'을 통해 이 주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연주회의 하이라이트!



Music Director
Im sang Yoon



Professor
Esther Yune



Professor
Somyung Hwang



Professor
Jeff Colella



Conductor
Vakh Jongwhi



Conductor
Carlene Kim



Conductor
Young Jae Kim



Conductor
Jungkeun Oh



Conductor
Julie Jihyun Cho

Soprano
Sunmi Shin

Tenor
Wiyoung Oh

Baritone
Sangkeun Chang

Composer
YoungSuk Chae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 기쁜우리교회에 감사패 전달



기쁜우리교회를 방문해 김경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국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

기독교 방송 선교를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힘쓰고 있는 CGNTV(사장 이용경 장로)가 지난 29일,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를 방문해 방송선교 협력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쁜우리교회를 방문해 김경진 목사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한국 CGNTV 사장 이용경 장로는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데 기쁜우리교회가 협력해준데 대한 깊은 감사

를 표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김경진 목사는 “인터넷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CGNTV의 방송 선교는 더 멀리,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CGNTV가 영훈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 곳곳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방송되는 CGNTV는 교단 교파를

넘어 1만여 명의 한인선교사들이 위성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위성 이외에도 케이블TV,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미주 CGNTV는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회의 성장을 돋는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방송을 하고 있고, 디지털 지상파 채널로 송출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교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진실 밝힌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는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전문의 염안섭 원장(현 한국 수동연세요양원)을 초청해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동성애 예방 교육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동성애 예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은 의사이자 목회자로 200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호스피스 전문 병원인 수동연 세요양병원을 설립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환자를 돌보다 많은 환자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자신의 의료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 강연, 각종 집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동성애 예방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친동성애 교육 정책과 법안들이 진행 중이며, 공립학교 친동성애 성교육에 이어 지난 6월 초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에이즈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

의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민권 결의안까지 준비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세미나가 현실과 예방, 동성애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성시화운동보부는 “남가주 목회자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 교계적 차원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염 병원장

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동성애 예방 교육 초청 세미나는 오는 7월 6일(토) 오전 6시 10분,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7일(주일) 오후 1시 30분, 팜스프링스한인교회(담임 최승목 목사)와 10일(수) 저녁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 213-905-2544 김영환 목사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6월 정기 기도회 개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30일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기도회를 열었다.

김태열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기도회는 노주은 장로의 기도 후, 남가주 교협 부회장 김성대 목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부회장 이병상 목사, 평신도분과위원장 황선철 장로, 차세대 분과위원장인 샘신 목사가 각각 조국의 사회적 화해와 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교회 간신과 교회와 차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한기형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마쳤다. 한편 남가주 교협은 남가주 기독교교협은 7월 정기 기도회는 오는 28일(주일) 종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기도회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찬양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6월 기도회

2019 남가주 밀알선교단 사랑의 캠프 400명 참석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준수 목사)

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 까지 2박3일 동안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탠 등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에서 모인 약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름다운 경치와 안전한 환경을 지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를 개최했다.

하와이 컨셉으로 준비된 올해 캠프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는 애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Ohana in Christ”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Ohana”는 하와이 현지어로 ‘Family’란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의미다.

캠프 첫날은 CSU Long Beach에 도착해 김영길(감사한인교회 원로)



2019 남가주 밀알선교단 사랑의 캠프 목사)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속식과 성찬식이 거행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을 성인 팀과 아동 팀으로 나누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Milal Got Talent’ 등의 장기 자랑, 교제 등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저녁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룸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파티를 하고 멋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기독일보 7월 일일관광

기차여행 라호야 코우부 바다사자 샌디에고 코로나도 섬

출발: 7월 13일(토)

모 * 대명 버스, 일식 뷔페,
암 * 기자 요금, 페리 요금.

\$99

성지 입장료, 및 모든 팀은
불포함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오션사이드 도착 – 럭시 일식 뷔페로 중식 후

라호야로 이동, 추억여행 즐기기 [사진 촬영]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 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 일보에서 출발 하여

O.C. 발상지인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자유 시간 – 태평양 연안 기차여행 즐기기

“신학적 교리와 이성에 갇힌 시대, 신앙의 본질 돌아왔다”

극단 이즈키엘 창작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 호평



뮤지컬 '마루마을'을 선보인 극단 이즈키엘



극단 이즈키엘의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 중

극단 이즈키엘(Ezekiel)이 지난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엘에이 반스 달 극장에서 선보인 창작 뮤지컬 '마루마을'이 또 한번의 감동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독교의 올바른 정체성을 되찾고자 제작된 뮤지컬 '마루마을'은 신학적 교리와 이성에만 갇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음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 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했다.

서울 대형교회 부목사로 충청도 산골 선교에 나선 김 목사가 경험하는 에피소드를 줄거리 삼아 전개되는 뮤지컬 '마루마을'은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욕에 찬 김 목사와 순수한 신앙과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루마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임을 깨닫

게 했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실천적 선교 방향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순박한 마루마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교리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자'는 김 목사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 목사를 존경하고 교회 건축을 돋는다.

이러한 대본의 기본 설정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신학적 교리와 함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소개하며 우리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오래 전 그 때 거기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외치는 장님 어린아이 귀동이의 믿음을 통해 고착화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신학적 주제는 배우들의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감칠맛 나는 입담을 비롯해 찬송가를 편곡해서 만든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와 춤 등으로 지루하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잘 짜인 각본과 연출, 업그레이드 된 배우들의 노래와 춤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뮤지컬이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전수경

감독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 예배는 일요일에만 드리는 이벤트로 믿는 종교의 올무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일상의 모든 일들과 만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을 뮤지컬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며 "신앙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루마을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 순 수익금을 항상 가난한 단체에 기부하는 극단 이즈키엘은 이번 공연 순 수익금 역시 멕시코 소노라 오브레곤 도시에 현재 지붕도 없고 쓰러져가는 버려진 집터에서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들의 예배당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말하지 않았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창단 이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노

력해온 극단 이즈키엘은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과 거부할 수 없는 '진리', 단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히다. 이즈키엘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연극 전문가들과 전문 배우들이 "관객을 성도에서 일반인으로 확대시키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크리스천뿐 아니라 널리 크리스천에게 예술 문화에 복음을 입혀 기독교적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김목사 역을 맡은 배우 최원현



삼식 역을 맡은 배우 이해찬과 인숙 역을 맡은 김은진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 스틸컷. 삼식 역을 맡은 배우 이해찬과 윤희 역을 맡은 한예랑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



현대옥은 이래서 좋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식사 현대옥콩나물 국밥



“현대옥콩나물국밥에는 웰빙과 힐링이 담겨 있다”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몸이 건강해지는 느낌/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여름의 별미
서리태 콩국수



전주 비빔밥



울개니 도가니탕

4월 1일부터 OPEN HOURS
월 ~ 금요일 10:30 am ~ 11:00 pm
토요일 07:00 am ~ 11:00 pm

TOGO, 예약 (단체) 문의
213.915.0058

3020 Wilshire Blvd. #119 LA, CA 90010

*주일은 쉽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18회>

2019 시카고 선교캠프를 맞이하여

이번 주는(7월 1일-6일) 필자가 이사와 지도목사로 섬기고 있는 인터콥선교회 선교캠프가 열리는 주간이다. 시카고 휴튼칼리지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도 다민족과 청년,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하여 2천여 명이 모여서 선교부흥 집회를 갖는다.

인터콥선교회는 10/40 창의 최전방 미전도종족 개척선교를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된 초교파적인 해외선교 기관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및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정회원 단체로 국내외의 복합적인 모든 교단 및 선교단체,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다.

선교캠프는 특히 미주의 48개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축제이다. 올해는 특히 한국어권 캠프와 다민족 영어권 캠프를 분리해서 치른다. 또한 동시에 청소년 유스캠프와 어린이 키즈 캠프가 따로 진행된다. 말 그대로 선교캠프는 전세대 전민족을 아울러서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하는 마당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선교캠프 장소인 휴튼칼리지 교정이 좋다. 선교미국을 주도했던 수많은 선교사, 목사,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다. 짐 엘리엇, 빌리 그雷, 노봉린 박사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19세기 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은 선교 명문학교에서 선교캠프를 매년 열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선교캠프의 강의들은 큰 도전을 준다. 세계 선교의 한 복판에서 사역하는 최전방 선교사들의 열방 선교 현황과 미래 대안 등을 들으며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수행해야 할까’의 해답을 찾기도 한다. 인터콥의 자랑 중에 하나는 SM(대학생 선교사)이다. 대학생들이 1년 이상 학교를 휴학하고 선교현장에 가서 지역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 하여 현지 장기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 사역에 도움을 주며 선교부흥의 주역으로 성장해 간다. 이 SM들이 미래의 장기 선교사와 다민족 선교지도자들로 자리나게 된다. 이미 인터콥은 수백 명의 SM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들을 배출하였고 이번 선교캠프에서도 수십 명의 새로운 SM들이 파송받아 선교지로 나가게 된다. 지난 1년 이상 헌신하다가 복귀하는 SM들이 선교보고를 하는 시간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우리 자녀들이 대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다. 필자의 자녀들도 이 집트와 이라크의 SM 출신들로 이 선교캠프의 스텝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필자의 교회 교우들은 대부분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매년 FO(단기선교)를 각기 다녀오는 성도들이다. 많은 교우들이 선교캠프의 스텝으로 섬기며 헌신한다. 많은 교회들이 이 한 주간을 교회 선교 수련회로 정하고 목회자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미주 안에는 약 80명의 지도목사들이 있다. 목사들이 함께 모여 선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는 시간도 있다.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여전히 지역교회들은 세계선교에 관심이 적다.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알리고 권해야 한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절대명령이다. 물론 선교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종족적이라 할 수 있다. 선교현장으로 가는 것이든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선교 대상지의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선교캠프이다. 교회들이 깨어야 하고 목사들이 더욱 일어서야 하고 우리들이 애육하는 성도들이 선교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아마존 원시림에서 만드는 행복 이야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학문과 기술은 사람들의 행복 욕구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행복의 조건들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 발맞추어 현대 문명과 과학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자동차는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자동차입니다. 더 좋은 집은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한 집입니다. 현대인들이 누리는 모든 문명과 과학기술의 경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사람들은 아침 운동을 하며 땀은 내고 숨을 헐떡이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을 하며 고생하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특별한 고행이나 자학을 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건강한 불편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이나 문명의 혜택이 없다는 것은 불편사항에 끼지도 못하는, 불편함이 종만한 삶의 현장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종들이 우글거립니다. 독종들이 살을 파고, 독종들이 살 속에 알을 까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4-50도를 웃도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없습니다.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전혀 없는 아마존 오지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강명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강명관 선교사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강남에 있는 명문 외국어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선교사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간곳이 원시적 삶을 살아야 하는 아마존 원시림입니다.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마존에서, 그곳 원주민들의 친구로, 조력자로 살아가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강명관 선교사의 행복은 자신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사로 살다가 선교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엘리트 선교사가 밀림에 들어가 1백 여 명 남짓한 ‘바나와’ 원시부족과 함께 둑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시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들 강한술 전도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아버지를 이어 성경번역 선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원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버

지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아버지를 이어 선교사로 지망한 아들이 대견하고 부럽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명관 선교사는 이미 성공한 행복자입니다.

강명관 선교사는 위클리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문자가 없는 원시 부족 민인 바나와 부족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나와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나와 부족은 겨우 90여 명 남짓한 소수 부족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존으로 향했는데 90여 명의 바나와 부족 규모에 실망해서 사역을 할 다른 부족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명기 7장 7절)’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데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한영훈을 전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바나와 부족 사역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행복이 찐하게 묻어 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불편하고 불안전한 삶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사모합니다.

남가주 청소년 위한 찬양 축제 열린다!

제6회 청소년찬양축제가 오는 8월 31일(토)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애너하임 본사 공개홀에서 열린다.

청소년찬양축제를 통해 남가주 청소년들에게 크리스천 문화 코딩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가 있다.

이번 축제는 특별히 남가주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자격은 K-12학년까지이며 성악, 피아노, 현악, 기악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곡은 자유곡 1곡과 찬송가 또는 CCM 1곡이다. 참가비는 Solo \$50, Duet \$80, Trio 이상 \$100이다.

신청기간은 8월 20일(화) 까지이며 신청방법은 GBC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찬양축제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와 GBC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한다.

문의: 213-222-3050
818-397-3344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ly@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Dietary Supplement 대마함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세요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경제에 사용되는 유익한 자연재료입니다.
* 자연으로 그 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차이나드롭 저극색
열매는 그 열매와 함께 낙지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G.I.S는 미국인협회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종종성이 있으며
한국식물로 유명하는 THCA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면증 등 다양한 치료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행복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험프씨드는 미국 티피지에서 수퍼푸드로
선정



\$250 +tax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인자약치료센터

Chairman & CEO / 험프함초환 개발자

MANUFACTURED IN THE USA

금줄히 여기는 자의 복

마태복음 5:7



본문 마태복음 5:7

7 금줄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금줄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중심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불행을 마음 아파서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은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했기에 의롭다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생고의 불씨가 되던 저주와 불행의 죄악이 하나님께 나를 금줄히 여기심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격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기 가치 기준이 육체의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적 가치를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평가받는 가치 기준은 인간의 학벌이나 지식, 출세나 명예, 재산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10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아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오만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은 육체의 조건과 외형적인 치장에 중점을 두고 그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 고통과 소망을 잊은 것에 대한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지탄과 욕을 듣고 살아온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 같은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나라의 세리들은 동족들에게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을 거둬들여 남은 것을 자신의 몫으로 쟁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령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벌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심령을 금줄히 여기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금줄히 여기기 전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살펴보고 비참하게 썩어져가고 있는 심령을 진심으로 금줄히 여기는 마음자세가 앞서야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진지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죄악에 찌들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을 불쌍히 여길 처지가 못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하늘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구원 얻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 언급한 바리새인과 같이 월급 타면 십일조 꼬박꼬박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하고, 아무개와 같이 자신은 죄도 안 짓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식적 신앙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15-18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언해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 비밀을 일깨워 주시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시켜 세워 쓰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인생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까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 없는 백성이므로 제쳐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의 빛을 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 데나리온 빛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빛을 갚으라”합니다. 그 동관은 임금 앞에서 엎드려 말했던 그 종과 같이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고 간구했지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은 490회를 뜻하기보다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자기 영의 가치를 깨닫고 회개한 성도가 용서를 구한다면 이처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한 자를 용서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 지옥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같다고 하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시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8:23-35를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빛진 자 하나님을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

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같은 종의 태도에 주인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 데나리온 빛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빛을 갚으라”합니다. 그 동관은 임금 앞에서 엎드려 말했던 그 종과 같이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고 간구했지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고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은 그의 인색하고 용줄함 때문에 용서받았던 것이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백 데나리온 빛진 자에게 행한 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베소서 4:30-33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하셨습니다.

금줄을 입은 사람은 금줄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죄의 올무 가운데서 금줄로 용서함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잊어버림으로 타인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금줄의 용서를 기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신이 용서받은 죄를 무효화시키는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줄히 여기는 자는 금줄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지혜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영원한 평화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國제 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이스티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라 \$40 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 단, 컬라만 하시면 \$40 up

프로페셔널 웨리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티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리 제품으로 컬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엿행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Youth 주일학교 오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대,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모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유도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산,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화-토) 오전 6:00(화-토)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나성교회
26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토)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례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 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예배(금) 오전 8:00
금요예배(금)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금) 6:30(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기도회(화-금) 5:20(화-금)
EM(Holy EM) 오전 10:00 오전 6:30(화-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ian.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1655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蹉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5:30(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준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오전 6:30(화-토)
중국어성경공부 오후 7:30(화-금)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주일예배(화-금) 9:00(화-금) 10:30(화-금)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복 담임목사
오전 11:00 (본성전) 토일아침 6:00
분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시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예배 오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30 한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화-금) Awana 오전 8:00(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전 8:00(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6:00(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ckchurch.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 예배(1부) 오전 9:0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사립의 빛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예배집회회 오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오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체풀 Valley Chapel 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죽음을 이긴…**‘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셨다”****故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 천국환송예배**

김영길 장로. ©한동대 제공

故 김영길 전 한동대학교 총장의 천국 환송예배가 2일 아침, 고인이 생전 장로로 섬기던 서빙고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인도로 정진호 장로의 기도, 장로합창단의 특송, 추모영상 상영, 이재훈 목사의 설교, 추모사, 조가, 이상준 목사(양재온누리교회)의 축도로 드렸다.

‘신트로피 드라마’(요한계시록 2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재훈 목사는 “김영길 장로님은 자기의 의와 권위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었다. 그 분의 영향력은 그려한 겸손에서 나왔다”며 “마지막 떠나는 여정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 절대로 나를 높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셨다”고 했다.

이 목사가 이날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신트로피 드라마’는 고인이 생전 지은 책의 제목이다. 이 목사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또한 죽어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러나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존재한다. 바로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뤄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은 증명되었다”며 “그러나 그걸 끌어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트로피 법칙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장로님은 그것을 믿으셨다. 그래서 죽음이 끌어들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셨다. 신트로피 드라마의 주인공이셨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러므로 이 모든 슬픔과 아

픔을 넘어선 기쁨과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우리가 함께 천국 환송의 여정을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신의 이별이나 다시 만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추모사 한 한동대 동문 김승환 씨는 “

다들 무모하다 이야기 할 때도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면 한동대를 일으키셨다. 언제나 ‘공부해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만 반복해서 외치셨다”며 “학교가 돈이 없어서 저당 잡아하신 당신의 집을 은퇴해서야 돌려받으셨고, 받으신 강연비도 어렵다고 한 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주셨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일주일 간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한 마디씩 해주신 총장님은 제 친구에게 ‘사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한다. 너무나 무겁고 명확한 말씀”이라며 “늘 당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수고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고인의 아들 김호민 목사(스파크랩 공동대표)는 “아버지 늘 철저히 ‘오직 예수’ 저는 ‘필요할 때만 예수’의 삶을 산 것 같다”며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이들의 눈물을 보며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는 걸 느낀다.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과, 그리워하던 종민(먼저 세상을 떠난 딸-편집자 주)을 만나실 것이다. 저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故 김영길 장로는 199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0년 가까이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천국환송예배는 오늘(2일) 오후 5시 포함 한동대 그레이스스쿨(IGE)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통합과 긍휼의 정신 필요해”****은보포럼 목회자 세미나 개회예배 설교**

“한국교회가 빠졌던 두 가지 우상은…”

송태근 목사, 한목협 전국수련회서 ‘선교’ 주제로 발제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한국교회가 두 가지 우상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하나는 교회 내에서 지나치게 커진 ‘사람의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숫자나 크기와 같은 ‘규모’라고 했다.

송 목사는 27일 서울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 자협의회(대표회장 이성구 목사) 전국수련회 발제자로 참여해 ‘선교’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송 목사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떠도는 말 중에 ‘성부 성자 성령 담임목사’라는 말이 있다. 참 슬픈 언어”라며 “리더십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이 갈채를 받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타에 의해 사람의 영향력이 한국교회 안에 지나치고 과도하게 자리잡았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잡는 것”이라며 “이는 우상과 같다”고 지적했다.

송 목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다름아닌 바나바였다. 당시 사울(바울)은 여전히 그의 회심을 미심쩍어하는 교인들로 인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두 사람을 뽑아 선교를 보내는데,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점이 눈

여볼 부분이라고 송 목사는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있다. 당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다. 그런데 그를 선교사로 보낸다. 바울도 겸증이 안 된 사람이다. 결국 교회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목사는 “사도행전을 보면 인간이 작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모색해서 이뤄지는 복음 전파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쓰기고 도망가다가 펍박 속에서 뿌려지는 복음의 흐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송 목사는 “숫자와 크기, 규모, 이 허상에 한국교회가 매몰되어 이것이 교회의 가장 선한 가치인 양 속고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송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이러한 우상들이 마치 거품처럼 꺼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목협 수련회에 송 목사 외에 임희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장신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이진오 목사(세나무교회 담임)가 발제했다.

김신의 기자

전광훈 목사

“나라 어지럽힌 주사파 쳐내는 계기 삼겠다”



지난 11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 ©이대웅 기자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문 발표 후 교계의 거센 반발을 겪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시국선언 이후 여론을 살펴보니 우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1천만 서명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연일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국민들의 불만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다. 저는 이것을 터트렸을 뿐”이라며 “3·1운동이나 4·19 혁명, 6·29 선언까지 모든 운동이 그러했듯, 밀바닥에서부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고, 앞에서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뇌관을 터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번 운동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하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한국을 어지럽혔던 이 더러운 주사파 문화를 근본적으로 쳐내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신이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주사파에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프레임에 넘어갔는데, 이제 완전히 속았음을 알게 됐다”며 시국선언을 통해 제기한 7가지가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성장 경제파탄, 국가안보 해체, 원전 파괴, 4대강 보 해체,

국제 외교 왕따, 주사파 사상’이라고 소개했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들이 주사파를 잘 모르시는데, 공부를 해 보니 간단하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정신적·사회적·정치적 생명이다. 그런데 후자를 수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사람의 영혼에 사기를 치는 행위로, 수령님에게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기독교는 주사파와 공존할 수 없다.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해 야지, ‘중도’란 경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적·이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주사파와 함께 간다는 것은 사탄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는 대한민국 원래 정신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그 동안 정치·경제·군사·교육·문화 전반에 스며든 주사파의 냄새를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 시한으로 연말은 너무 늦다고 하셔서,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1천만 서명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무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이침 성경공부 10:40 이효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성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들어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30 이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이야 함과 같으니라(골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s.org

주일예배 오전 8:00 고창현 담임목사
9:3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11:00
EM 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회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전 9:00 윤 목 담임목사
9:00 복음교제 1부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교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주일1부 오전 9: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주일2부 오후 11:00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7:3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 915-9191, 995-5351 john.m9191@yahoo.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교실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전 1:30 한국학교(교)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어성년부(주일)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생부(주일) 오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1부예배 오전 9:00 백정우 담임목사
9:30 새벽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주일학교 오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새우 받아 함께 일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유아동체부, 유초등부
수요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5: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인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예배 오후 1:00

온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교회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우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일문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성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일예배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대胆세를 세우고 복음을 더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1:30(청년 영예)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회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부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Inland Church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문서/신문/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북한 고문 실태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로…”

VOA, 국제 고문의 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탈북민 인터뷰



수감 중인 북한 여성과 감시관의 모습. ©휴먼라이츠워치 제공

미국의소리(VOA)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 고문 실태를 보도했다.

탈북민 김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전해들은 고문의 실태를 증언했다. 김 씨는 “가만히 앉은 자세로 몇 시간씩 있게 한다.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가만히 있기엔 매우 힘들 데,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 등으로 때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서 발을 들게 하고, 그 위에 의자 같은 것을 올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12살 어린이에게 족쇄를 채워 매달아 놓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인 구타라든가 감옥에 들어가 맞고 나온 현상들을 일상적으로 목격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식이 너무 낮아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여기지 않은 채 그냥 감수하고 있다. 고문이나 학대의 가해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고문과 질병, 굶주림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북한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이 이 사망했다는 탈북민들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해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고문 등의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고문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LGBT에 대한 美 젊은 세대들 호감도 줄어

미국의 젊은이들과 밀레니얼 세대들의 LGBT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 풀(The Harris Poll)이 친동성애단체인 GLAAD의 요청으로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The Accelerating Acceptance’보고서에 따르면, LGBT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이들의 수용성이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LGBT 수용에 관한 미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여론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34세의 젊은이들이 LGBT에 대한 호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젊은 응답자 중 39%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LGBT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젊은 응답자 중 33%는 LGBT 선생님이 있어서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25%보다 증가한 수치다.

벤 카슨 美 장관

공적영역에서 하나님 밀어내는 것, 매우 잘못

벤 카슨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미국인들의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카슨 장관은 미국의 복음주의 민간단체 신앙과자유연합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연례회의 ‘로드 투 매저리티’(Road to Majority Conference)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깨닫어야 할 것은 미국이 유대-기독교적 원칙과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같은 원칙을 지켜야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 이 자유의 땅에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밝혀 온 카슨 대표는 “처음 공직을 맡았을 때, 사람들은 내게 ‘신앙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신앙)은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고 말한다. 수 많은 법정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동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In God we trust)는 문

구가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설립할 당시의 문서에, 우리의 맹세에, 우리의 법정에, 우리의 돈에 이러한 문구가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카슨 대표는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질 때가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는 때”라고 말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벤 카슨은 트럼프에 의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임명됐다. 신경외과 의사 시절 삼쌍둥이 분리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켜 큰 주목을 받았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 1,000원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급매 크기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383.1230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发生的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해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전화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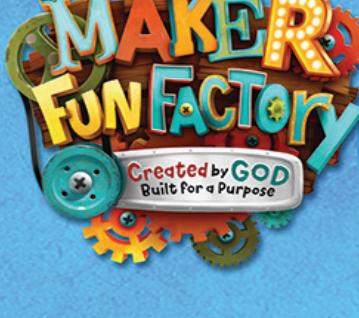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킴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media@gmail.com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 65 Stand X-Banner
\$ 140 Retractable Banner

가시데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 160 (디자인 포함)



“주일학교 부흥의 베이직 ‘ABCD’ 는...”

**교회학교 위기, 믿음 심지 못하는 것
시험기간 교회 결석? 1~4계명 위반
믿음 심기면, 아이들 자발적 전도해**

6월 24일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교회(담임 김의식 목사)에서 열린 제7회 전국 목사·사모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에서는 이정현 목사(군산드림교회, 예장 합동)가 ‘교회학교 부흥의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군산드림교회 교회학교 총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부흥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군산드림교회는 전국 2천명 이상 출석 교회드 중 교회학교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회학교 학생 수가 1백명에서 16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정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숫자보다,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학교나 종교등부 사역을 하는 경우 사역자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진정한 이유”라며 “사실 크리스천 학생들 대부분은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제대로 터치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회학교는 믿음에 대해 대부분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 먼저 학생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지만, 그 믿음을 터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이 목사는 “담당 교역자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전달 방식을 고집한다거나, 그간 교육부서의 전통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라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시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지만, 그 교육 방법은 시대마다 변해야 한다. 이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교육 방법론이 현장에 남아있고, 교사들의 가르치는 모습에도 참신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믿음의 부분은 거의 포기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걸맞은 상품들에만 많은 투

자를 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믿음 성장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두고,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도록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며 “고가의 상품이나 유명 연예인을 통해 학생들이 한번은 올 수 있지만, 기대치만 커져서 다음에는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시험기간이라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쉽게 1~4계명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것도 바로 잡지 못하는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겠는가. 강단에서부터 시험기간과 믿음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부흥의 베이직 ABCD’를 제시했다.

첫째는 ‘예배(Adoration)’이다. 그는 “영적 성장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며 “저희 교회 예배는 재미있다.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죄이다. 조금만 이해하고 노력하면, 설교를 들리게 할 수 있다. 요즘 20분 유튜브 보라고 하면 지루해서 안 보니, 3~5분 요약판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한 가지 테마에 2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아이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해해 주고 헤아려 주길 원한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 마음만 알아줘도, 설교가 들어가고 분반공부가 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둘째는 ‘훈련(Bible & Prayer)’

이다. 그는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 준비팀 아이들 100명은 시험기간이라도 학원에 안 가고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 기도의 양만큼 예배의 질이 달라지더라”며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 큐티를 강조해야 한다. 훈련하면 변화된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수련회 저녁집회 1시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셋째는 ‘전도(Crying out)’이다. 이에 대해 “전도에 앞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전제조건이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전도한다. 믿음이 심기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많이 드는 공회전”이라고 했다.

이정현 목사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동기유발이다. 전도의 동력은 담당 교역자가 먼저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전도에 대해 너무 식상해한다”며 “전도하면 학교에서 싫어한다거나 욕을 먹는다는데, 2천 년 기독교 역사상 전도를 좋아한 시대가 있었는가? 펉박받고 욕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학교를 자주 찾아간다. 새신자들의 3/4는 이 학교 심방을 통해 나온다.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열어주셨다”며 “어떻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지 말아달라. 해 보지도 않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꼭 학교로 들어가야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결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Delight)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나를 환영해주는 교회’가 1등이었다. 저는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 들어올 때 ‘하이-파이브’를 해 준다”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죄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저희 교회학교에는 학년별 ‘일진’들이 다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도를 정말 잘 한다”고 했다.

2위는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다. 이에 대해 “친구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존중감을 느끼면 아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혼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성경적 교육방법은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정현 목사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빙산’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빙산의 일각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다. 하지만 빙산 아래가 훨씬 큰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볼 때,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승부할 수 있다. 꼭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연령은 상관이 없다”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계속 하다 보면, 빙산이 조금씩 솟아 오르듯 믿음도 올라올 것”이라고 사역자들을 격려했다.

이정현 목사는 청소년 사역자료실(Bank of Youth Ministry, www.bym.or.kr)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나누고 있으며,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베이직>도 작년에 펴냈다.

모집 과정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사
- 기독교육학사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석사
- 기독교육학석사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상담학철학박사
- 기독교육철학박사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끌수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 준 목사

“한국교회와 조국 잘 돼야,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도 잘 돼”

지난 6월 10-13일 한신교회(담임 강용규 목사)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총장 제임스 맥도날드, SFTS)이 주최하는 제13회 신학심포지엄(목회자 연장교육)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됐다.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 준 목사는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에 대해 강의했으며 인터뷰는 <바이블 백신>의 저자인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가 진행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모범적인 목회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 이민사회 목회의 흐름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80~90년대 이민의 문이 열리고,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한인들이 미주 사회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한국도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한인들의 유입이 감소하고 경제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기 유학의 경우도 한국에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민교회가 전반적으로 숫자적인 성장이 어렵고, 이제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주에 있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돌파구라고 하면 자녀 세대인데, 그래서 영어권 2세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한인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다음은 어떤 단계일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고민이 치열합니다. 대체로 결국 한인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다민족 교회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민교회의 80%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머지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20%의 교회가 다음을 내다보고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권 준 목사는 LA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탈보 신학대학원과 풀러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와 두란노서원 원목을 거쳐 시애틀형제교회 담임으로서 교회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민교회에 곧바로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예전에는 불미스런 사건이 터져도 이민사회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거의 실시간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잘 돼야, 조국이 잘 돼야 이민교회와 이민 사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 합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이민목회의 의미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흩어진 또는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뿌려진 씨앗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른 이방의 땅에 뿌리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닌 다른 땅, 다른 자리에 뿌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창 12:1-3).

우리는 여기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킹덤 드림(Kingdom Dream)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죠. 결국 1세대의 어려움과 시련을 넘어, 2세대가 성장하여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소망이자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한인사회에서 한인교회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위상과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의 위상이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커서 인내하고 교회를 지키는 버티는 이들이 있지만, 이민자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갈라지고 분열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인사회에서 교회는 그다지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민이나 유학을 오면 꼭 교회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거나,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했지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행사를 할 때, 항상 교회에 먼저 물어보고 인원 동원을 위한 도움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가 발달하면서, 저마다 관심사에 따라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더 이상 교회를 찾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한인 커뮤니티도 이민교회를 별로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이 지역에 종영사가 부임하면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영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적어도 영사의 부인은 교회에 나왔죠. 교회 행

사가 있으면 영사가 와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영사 중에서도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즈음 이민사회로 들어오는 30대를 보면,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큰 맥이 하나 끊긴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입시준비를 하고, 주말에도 도서관과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교회에 빨리 다니지 못합니다.”

-미국교회의 트렌드를 볼 때, 한국교회가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더 이상 트렌드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대이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역량도 성장했지요.

다만,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좀 더 힘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느끼는 것이 ‘갑질 문화’입니다. 여전히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아래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삶에서 더욱 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가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도입하는 것보다, 교회 본연의 모습

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한 죽이 목사이겠지요. 예수님의 섬기는 마인드를 잘 구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세대 통합예배’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좋고, 꼭 구현해야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요즘 교회가 세대별로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부가 뭘 하는지, 유년주일학교에서 뭘 하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청년들이 부서를 떠날 때쯤 되면, 청년부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고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를 중요하게 보고,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는 이중 언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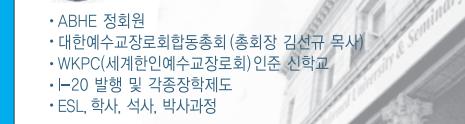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중 하나는, 전 세대가 같은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일에 그 교재 본문으로 설교하고, 교회학교도 같은 교재로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나눕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신학생 말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유년, 중고등부를 끌고 갈리더입니다. 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겠다는 이들이 나오면, 교회가 장학금을 주고 키워내야 합니다. 굳이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이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우리에게 투자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행사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저 현금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역자들은 주차봉을 들고 다 주차장에 나와 안내합니다. 그러나 보면 모두 힘을 얻고, 다음 세대에 마음을 쓸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담임목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 미주기독대학박람회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구 목사)

· WKPCI(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장로회(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희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 | 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칠레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류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성경사역학박사

목회학석사

교류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성경사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대 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수) 접수시 \$5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회 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
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1회▶7월 30일까지 \$500, 2회▶8월 30일까지 \$500, 3회▶출발 7일전 \$1,000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 행	상 세 일 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둠, 주기도문 교회, 베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훈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달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례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쿰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툰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화,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호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랴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둘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THE SOURCE
presents

www.goodneighbors.us

&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WORSHIP

TOGETHER

심형진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예수닮기를” “멈출 수 없네”的 작사·작곡자.
전 예수전도단 캠퍼스워십 리더. 전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리더. 현 얼바인 온누리교회 예배담당

7.6 (토) 저녁7시30분 at THE SOURCE
부에나팍 CGV, 3층 야외특설무대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90621
문의 : 877.499.9898

